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3(월) ~ 202.1.7(금)

제공일시 2022 01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3(월) ~ 202.1.7(금)

제공일시 2022.01.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4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대만, 아시아 최초로 기후연계 투자 의무화

- 글로벌 녹색 투자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최대 연기금이 23억 달러(2조7000억원)에 달하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 중심 주식 의무화 펀드를 발행한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밝힘
- 올 1분기부터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공개입찰이 시작될 방침. 이 펀드는 5조5000억 달러(653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블랙록, 피델리티, 핼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음. 일본 정부 연기금이 2018년 2개의 S&P탄소효율기주를 적용한 기업에 1조2000억엔(10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기후 의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대만연기금은 기후지표 성과에 더해 0.5% 연간 추가수익률을 연계할 계획. MSCI의 파리협정 기후 정렬 지수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Reuters, 2022.1.6) Selena Li
<https://www.reuters.com/markets/energy/asia-23-billion-climate-change-pension-fund-debut-2022-01-06/>

2. 獨-오스트리아, EU '원전투자 녹색 분류'에 거센 반발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적인 '녹색 투자'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에 보이자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거세게 반발. 독일 슈테피 램케 환경부 장관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력은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을) 녹색 투자에 포함하는 것은 실수"라고 밝혔으며, 오스트리아는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침
- 특히, 자국 내 원전을 전면 폐쇄하고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음.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중단을 선언. 독일 북부 그론데 원전 등 3곳의 운영이 지난해 12월 31일 완전 정지. 남은 3개 원전도 올해 12월까지 폐기할 방침.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도 유사한 이유로 EU 초안에 거부감을 표시. AP통신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 사고에서 비롯된 반핵 정서가 유럽 내에 팽배해 각국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엇갈릴 것"이라고 전함

(동아일보, 2022.1.4) 김윤종 기자
<https://www.donga.com/news/energy/article.html?no=2022010411107381>

3. 日, 전력망 확충..."20조원 규모 시장 열릴 듯"

-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 차세대 송전망 정비에 나선다고 보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6월 처음으로 수립하는 '클린 에너지 전략'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지시
- 총 사업규모는 2조엔(20조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먼저, 2030년까지 홋카이도와 도호쿠·도쿄 지역을 연결하는 해저 송전망 등이 신설. 홋카이도에서 도호쿠 지방까지 평일 낮시간대 전력 송전량은 약 90만kW인데, 향후에는 이를 도쿄까지 연장하고 400만kW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 홋카이도의 풍력발전량이 2030년께면 현재의 약 2~3배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만든 구상. 규슈에서 일본 중서부 지역인 주부지방까지 송전량도 현재 280만kW에서 그 두 배인 560만kW까지 늘리는 사업이 추진
- 한편, 미국은 앞서 지난해 4월 청정 에너지 정책 목표에 대응해 노후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80억 달러(8조 90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

(파이낸셜뉴스, 2022.1.3) 조은호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201031310568>

1. 바이든 '밥상물가 잡기' 본격화... '고기 유통망'에 '반독점 규제' 본보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육류 가공업체를 상대로 한 물가 잡기 대책을 3일(현지시간) 공개**. 해당 대책의 이름은 '더 공정하고, 더 경쟁적이며, 더 회복력이 큰 육류·가금류 공급망 행동 계획'
- 이는 앞서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들의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 육류 가공 회사를 첫 번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대응 분야로 지목한 데 따른 것. 당시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팀인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주도로 자국의 '고기 공급망' 시장에 유통 담합이 극심하다고 분석
-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공급망 수정 △소비자 보호 △인프라 투자안(더 나은 재건 계획)을 통한 밥상 물가 절감 등의 원칙을 제시하며 소규모 농장·목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특히 소규모 업체들의 독립적인 생산·유통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 구체적으로는 △대형 업체에서 독립적인 도축장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각 3억7500만 달러(4461억원)와 1억 달러(1189억원)를 △소규모 업체를 위한 신용 대출 기금에 2억7500만 달러(3271억원)를 △농·축산 산업 내 인력 훈련·일자리 개발, 초과 근무 비용 지원에 각각 1억 달러 등을 지원할 계획

(아주경제, 2022.1.4) 최지현 기자
<http://www.je.com/view/20220104053279>

2. 카타르항공, 항공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카타르항공이 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대금 정산소(ICH)를 이용해, IATA 항공 탄소 거래소(ACE)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한 최초의 항공사**가 되었다고 발표
- IATA 항공 탄소 거래소는 항공업계 내 규정 준수 및 자발적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으로 항공사들이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쉬운 거래 환경 등 간편한 절차를 제공. 국제항공당국은 거래 절차를 단순화했고, 카타르항공은 ICH를 이용해 탄소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줄이고 비용 부담도 더는 이점을 누림
- 한편,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의 '탄소 중립' 도달 달성을 위한 결의안을 승인

(헤럴드경제, 2022.1.4) 함영훈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id=202201040015>

3. 중국, 3년만에 회사법 개정 추진...사외이사 책임 강화

- **중국이 3년만에 다시 회사법을 개정할 방침**. ESG경영 고도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된 가운데, 이번 회사법 개정에서도 **회사 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 이사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 이사회를 회사 집행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와 감사, 고위 경영진의 의무를 각각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이들의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 내용을 삽입
- 지난해 분식회계가 적발된 중국 상장회사 캄메이제약의 사외이사가 중국 첫 주식 집단소송에서 사상 처음 거액의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최근 중국에서는 사외이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논란이 일고 있음. 리스크 부담으로 중국 상장사 사외이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져, 심지어 중국 상장사들은 '이사책임보험' 가입까지 급증했을 정도. 이외에도 **개정되는 회사법에는 법규 의무 준수, 직원과 소비자 이익, 생태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도 명시**

(아주경제, 2022.1.7) 배인선 기자
<http://www.je.com/view/20220107021313>

1. '노동전환' 내연차·석탄발전 종사자 90만 명 고용충격 직면

-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전환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내연기관차와 석탄화력발전이 꼽힘
- 내연기관차의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 7곳의 근로자 22만 명이 고용 충격에 직간접으로 노출. 특히 2030년까지 출시되는 신차 중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이 33.3%(60만 대)로 확대되면 내연기관 전용 부품 생산 협력사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음. 또 정비·판매, 주유·금융 분야에서도 고용 충격이 동반될 것으로 분석. 2018년 기준 자동차 정비·판매 종사자는 약 28만 명, 주유·금융 종사자는 약 26만 명 수준
-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분야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집중될 전망. 현재 58기의 석탄화력발전 종사자는 약 5600명에 이룸. 여기에 협력사 종사자는 약 8000명에 달함. 정부는 전체 석탄화력발전 58기 중 28기를 2034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할 방침. 이 과정에서 LNG 발전 전환이 불가피한 원료운반·저장 설비 등을 수행하는 협력사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
- 정부는 노동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작년 7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직무전환 및 재취업 훈련을 위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중

(이투데이, 2022.1.9) 서병근 기자
<http://www.etoday.co.kr/news/206469>

2. 국민연금, 굴뚝산업 주주권 행사 '군불'...탄소중립·주주이익 행킨다

- 국민연금은 지난 5일 SK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 지난해에는 현대제철과 한화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음.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최근 투자목적을 변경한 것은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이들이 내놓은 탄소저감 방안 등이 정부의 목표인 '2050 탄소중립'과 비교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 때문
- SK케미칼과 현대제철의 경우는 적극적인 탄소저감 방안을 내놨음에도 일부 경영방침 등이 기업 저평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SK케미칼의 경우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한 지난해 3월 전 주가는 40만원 대였지만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날 기준 13만9500원을 기록. 현대제철은 철강 시장 호황으로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저조. 탄소중립 정책 또는 실적에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기업가치 저평가로 인한 주주이익 훼손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

(아주경제, 2022.1.7) 김성현 기자
<https://www.ajunews.com/view/2022010703448331>

3. 두세배 환수는 커녕 5%만 되찾아...매년 6만명 회삿돈에 손 댄다

- 4일 대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개인·기업 등의 횡령 피해액은 2조7376억원에 달함. 하지만 자금 회수는 고작 1312억원으로, 횡령 피해액의 4.8%만이 겨우 회수된 셈
- 횡령 사고는 매년 6만여 건씩 발생.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횡령죄 발생 건수가 6만539건. 2019년 6만 819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4년에는 3만7800건인 것에 비하면 5년 만에 1.6배 증가한 것
-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에선 1880억원에 달하는 대형 횡령 사고가 터져 소액주주 2만명이 피해를 입고 있음.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는 '회수 가능한 자금 규모'에 달려있음.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 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실로 잡히게 됨. 횡령액 1880억원은 이 회사 자기자본의 91.8%에 달하는 규모. 전문가들은 범죄수익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안 돼 이 같은 재산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

(매일경제, 2022.1.4) 박윤예, 김정석 기자
<https://koreajournal.com/view/202201040066438>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3(월) ~ 2022.1.7(금)

제공일시 2022.01.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4

CES 2022, '기술'에 '녹색'을 입힌 혁신에 주목

-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2'가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코로나19로 지난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지만, 올해는 2년만에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으로도 개최. CES 전시회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159개 국가에서 2200여개 기업이 참여**. 오미크론 확산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트위터, 메타(옛 페이스북),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참가했지만, 국내 기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참석해 혁신 기술을 뽐냄
- CTA는 CES에 등장한 혁신 기술을 토대로 올해의 5대 기술 트렌드로 ▲ 핀테크(Fintech) ▲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 수송 기술의 미래(the Future of Transportation), ▲ 푸드 테크(Food Tech), ▲ 디지털 치료법(Digital Therapeutics) 등을 전망.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에 **'친환경'이 반영된 기술과 제품들이 대거 소개돼 주목**. 특히, 국내기업의 친환경 기술과 전략들이 활발하게 소개
- CES 2022에서 혁신상 21개를 포함해 총 108개 상을 받은 **삼성전자는 한중희 부회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술의 지속가능성을 강조**. 특히 태양광이나 실내조명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솔라셀 리모컨'을 소개. 솔라셀 리모컨은 기존 리모컨 대비 소비전력을 80%이상 감축할 수 있으며, 이 리모컨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량과 사용 기간을 고려했을 때 2억개가 넘는 배터리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힘. 이는 배터리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까지의 거리. 제품의 친환경은 물론 포장까지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고 밝힘. 일례로, TV 등 가전제품 포장 박스를 업사이클링해 생활 소품으로 탈바꿈하는 '에코 패키지'를 소개.
- 더불어 **삼성전자는 TV 등 디스플레이 제품은 전년 대비 올해 30배 이상 많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25년까지 모든 모바일·가전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다는 계획. 또한 파타고니아와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힘.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는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작은 생물의 몸에 쌓이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오게 됨.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세탁 시 섬유에서 떨어지는 미세플라스틱을 물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
- SK그룹은 현재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 충북 충주 인등산 숲을 모티프로 한 그린 부스를 CES 전시장에 마련해 친화적 기술과 '넷제로(탄소중립)' 계획을 공유. 국내 대형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CES에 참가한 **SK에코플랜트는 넷제로 시티(Net Zero City)를 선보임**. 넷제로 시티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폐기물, 대기오염물질을 에너지화 또는 자원화함으로써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순환 경제 모델을 적용한 환경 도시. 특히, 넷제로 시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 환경·신재생에너지 해법이 담김. SK텔레콤은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인 인공지능 반도체 '사피온'을 공개하고, 기지국과 네트워크망 전력 사용량을 50% 이상 아낄 수 있는 '싱글랜' 기술도 선보임. 또, 처음 CES에 나온 **SK E&S는 수소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친환경 수소 밸류체인 구축 전략을 소개**. SK그룹은 부스 투어를 마친 관람객들에게 전시장 밖의 SK 푸드트럭에서 대체육으로 만든 핫도그와 대체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CISION, 2022.1.5) San Mateo
<http://www.previous.com/newsroom/techcoop-2022-product-design-announces-working-partnership-of-digital-recycling-appliance-and-batteries-panels-program-3166661.html>

(Techxplore, 2022.1.7)
<https://techxplore.com/news/2022/01/announcing-sustainability-ideas-ces.html>

(아주경제, 2022.1.9) 이상우 기자
<https://www.ajunews.com/news/2022/01/14/0223/>

(매일경제, 2022.1.6) 정석환 기자
<http://www.mk.co.kr/news/industry/ces/2022/01/23/41/>

(HelloDD, 2022.1.5) 이윤진 기자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esv-0521>

- 현대중공업은 자율운항 선박인 '아비커스'를 경험해볼 수 있는 가상현실 공간을 전시. 더불어 **정기선 현대중공업이주 대표는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로 그린 수소를 만드는 설비와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을 상용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두산퓨얼셀은 개발 중인 트라이젠(연료전지를 활용해 수소와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 기술을** 선보였으며, **두산밥캣은 유압 관련 시스템이 모두 제거돼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트랙로더·전기굴착기·무인지게차 등 친환경 장비 3종을 전시**
- **해외 기업 중에서도 친환경을 강조한 곳이 다수.** 미국 농기구 업체인 존디어는 잡초만 골라 선택적으로 제초제를 뿌려 제초제 사용량을 77%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으며, 독일에 본사를 둔 보쉬는 환경 보호를 위한 화재감지 센서를 공개
- **스타트업도 환경을 입힌 기술을 활발히 소개.** 레인스틱(RainStick)은 목욕시 버려지는 물을 재순환해 물과 에너지를 80% 절약하는 솔루션 기술을 선보임. 캐나다 스타트업 오토도 물 사용량을 50%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 스프링클러'를 선보였는데, 이는 금년 CES 혁신상으로 선정. 우크라이나 스타트업인 에파(Effa) 종이로 만들어진 칫솔과 면도기를 선보임. 제품에 포함된 금속과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해 업계에 주목을 받음. 라쏘루프(Lasso Loop)는 오염으로 인해 폐기물이 재활용률 낮다는 점을 인식해 가정에서 플라스틱, 유리 등 7종의 폐기물을 세척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가전제품을 소개. 미국 스타트업인 Amogy는 암모니아를 재생가능한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을 소개, 이 기술은 중장비, 해상 및 운송 분야에서 사용가능해 시장의 주목을 받음